

# 언어 기호 개념의 재고

—기호삼각형을 중심으로

전성기

## 1. 머리말

현대 기호학의 두 원천으로 거의 모두가 소쉬르와 퍼스를 꼽고 있으나, 오늘날의 기호학 연구에서는 단연 퍼스의 존재가 두드러진다. 메쇼닉 Meschonnic(1997: 308)에 의하면 소쉬르는 “퍼스와 구조주의에 의해 이중으로 잊혀진 존재”다. 야콥슨 Jakobson도 기호학 연구에 대한 소쉬르의 기여는 퍼스에 비해 미미하고 제한된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sup>1)</sup> 소쉬르의 기호학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뷔이센스 Buyssens, 무냉 Mounin의 기능주의 기호학은 일반 기호학적 연구의 틀로서 제시된 것이나, 그 일반성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sup>2)</sup> 무엇보다도 언어의 구체적·세부적 연구에 뚜렷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기능주의 기호학의 대표적 연구자의 한 사람인 프리에토 Prieto의 저서들에서도 자연어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레마스 Greimas의 기호학도 소쉬르의 기호학이 모태가 되었다고는 하나, 그 연장선상에

---

1) 서정철(1998), p. 14.

2) Nattiez(1973).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 기호학은 기호의 표현과 내용 양면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내용면에 대한 연구며,<sup>3)</sup> 코케 Coquet(1982)의 표현을 빌리면, 기호의 발현에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많은 학자들이 기호 개념이 중세 이래 퍼스와 소쉬르에 이르기까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조 Pesot(1979: 70)는 “Aliquid stat pro aliquo,” 즉 “어떤 무엇이 다른 무엇을 대신한다”는 기호의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중세 철학자들 이래로 소쉬르, 퍼스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는 바뀐 것이 없다고 하며, 이는 야콥슨의 견해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소쉬르의 기호 개념은 그 이전의 기호 개념과 같거나 유사한 것인가? 기호학을 통해 언어 자체를 연구하고자 했던 소쉬르의 시도는 무산된 것인가? 소쉬르는 퍼스로 인해 잊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몰로 Molho, 로네 Launay, 슈발리에 Chevalier 등의 신(新)기호학자들의 연구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이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짧은 글에서 이 큰 문제의 모든 측면을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문제를 기호삼각형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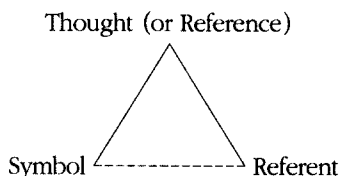
## 1. 기호삼각형

중세 철학자들의 /vox→conceptus→res/, 퍼스의 /Representamen→Interpretant→Object/, 라이언스 Lyons의 /Form→Meaning(Concept)→Referent/ 이 모두 삼분법으로 해석되는데,<sup>4)</sup> 이러한 삼분법이 기호삼각형의 형태로 표시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오그덴 Ogden /리처즈 Richards(1923)의 ‘기본 삼각형’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sup>5)</sup>

3) Voigt(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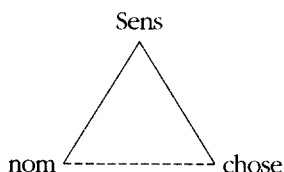
4) Rastier(1988: 683).

〈도식-1〉



그러나 과연 소쉬르의 기호 개념도 기호의 고전적인 정의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기호삼각형으로 적절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 기호삼각형의 확산에는 울만 Ullmann의 역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울만(1952)에는 다음 도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nom이 symbol의 자리에, sens가 Thought의 자리에, 그리고 chose가 Referent의 자리에 나타나 있다.

〈도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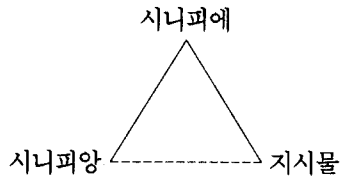
그러나 과연 이 두 도식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sup>6)</sup> 또한 이 도식

5) Heger(1969: 46~47)는 각 꼭지점에 대해 token과 type 두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6) Tamba(1988: 419)는 〈도식-2〉의 기호삼각형을 회전시켜 sens의 자리에 nom을, nom의 자리에 chose를, chose의 자리에 sens를 위치시키고 있다. 그는 nom과 chose 그리고 nom과 sens의 관계를 실선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언어 형태의 사용에서 “동일한 음성 연속체”가 사물의 명명 dénomination에도 쓰이고(예: Cet arbre est mort), 개념의 명명에도 쓰인다(예: le concept d'arbre)는 점을 들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두 'arbre'는 동일한 위상의 것이 아니다. 사실 “Cet arbre est mort”에서의 'arbre'는 사물어이지만, “le concept d'arbre”에서의 'arbre'는 이른바 지시어 autonyme다. 낱말 mot의 개념이 이를

을 언어기호에 대해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 다음의 기호삼각형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인가?<sup>7)</sup>

〈도식-3〉



퍼스에게 있어서 기호는 “어떤 관계나 어떤 자격으로 다른 것을 대신하는 무엇”<sup>8)</sup>이니 기호의 고전적 정의와 전혀 다르지 않다. 그에게서 하나의 ‘기호’ 혹은 표상체는 그 ‘대상’ 그리고 ‘해석항’과 삼원적 관계를 맺는데, 동일한 대상에 대한 해석항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해석항은 ‘주석’이고 ‘정의’며, “기호의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주해”다.<sup>9)</sup> 해석항은 “기호가 해석자의 머리 속에 떠오르게 하는 생각”이며, 한 표현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전제로부터 이끌어낸 추리의 ‘결론’이기도 하다.<sup>10)</sup> 모든 기호의 한 기호의 해석항이기 때문에 기호들은 다른 기호의 대상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무한정으로 해석항의 역할을 할 수 있다.<sup>11)</sup>

---

nom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름이 언어의 기저는 아니다. 모든 언어 형태가 nom, 즉 이름은 아닌 것이다. 게다가 그의 기호삼각형은 랑그가 아니라 언어 형태의 사용, 즉 담화를 염두에 둔 것이기에 기호의 일반적 설명에는 적합치가 않다.

- 7) 이 기호삼각형에서 ‘시니피앙’ 대신에 ‘형태’ 혹은 ‘표현’, ‘시니피에’ 대신에 ‘의미’나 ‘의미 작용’ 혹은 ‘내용’, ‘대상’ 대신에 ‘사물’이나 ‘지시물’이란 말이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형식과 실질의 구분에서 비롯되는 기호사각형, 심지어는 Bouchard(1980)에서와 같이 기호오각형도 기호학 저술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이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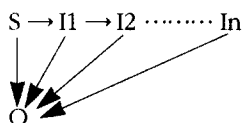
8) Eco(1980), p. 79.

9) Granger, G.-G. (1968), *Essai d'une philosophie du style*, p. 115. Nattiez(1975: 60)에서 재인용.

10) Eco(1980), pp. 81~82.

11) Eco(1980), p. 87.

〈도식-4〉



도식은 분명히 개념(또는 기술이나 설명)의 이해를 돕는 하나의 교육적 수단이다. 그러나, 때로는 도식이 두드러지는 나머지 개념의 이해를 방해하기도 하고, 왜곡하는 경우도 없지 않는데, 소쉬르에 관한 한 기호삼각형은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그 이유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 2. 기호와 지시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것은 기호의 고전적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기호와 지시물의 관계다. 이 관계에 대해 가능한 몇 가지 추론 중의 하나는 모든 기호에 당연히 지시물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형태의 단언을 수용할 학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사실 어휘어, 특히 명사에 대해서는 지시물을 얘기하지만, 문법어에 대해 대상이나 지시물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sup>12)</sup> 또한 지시 관계를 부여하더라도 그것은 낱말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고, 형태소에는 거의 지시 관계를 부여하지 않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호삼각형의 타당성을 제한하는 요인이다.<sup>13)</sup>

클레베르 Kleiber(1984: 77)는 언어의 첫째 사명이 현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기호가 기호인 것은 기호가 바로 그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언어의 기능적 측면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소쉬르 서지학자인 앵글러 Engler(1973:

12) Tamha-Mecz(1988), p. 76; Baylon/Mignot(1995), p. 31 참조.

13) Rastier(1990), p. 67.

51)는 자연어에 고유한 것은 적응성 · 풍요성 · 차별화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어의 기호적 전능성이라는 기호의 구성적 측면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기호의 전통적 정의인 “Aliquid stat pro aliquo”나 기호삼각형에서는 기호의 구성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이 명료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앵글러(1973: 46)는 이 두 측면을 “기호의 성립 관계”와 “기호의 적용을 지배하는 의식 관계”로 분명히 구분한다.<sup>14)</sup> 적어도 전자의 경우에는 기호삼각형을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호의 적용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명칭론 onomasiologie과 어의론 sémasiologie이다. 전자에서는 지시물이 기호와 는 별도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는 명명의 관점이며 언어를 목록으로 간주하는 관점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소쉬르의 기호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sup>15)</sup> 명명을 실사뿐 아니라 동사, 형용사 그리고 -ment형 부사에까지 확산시킨다 하더라도,<sup>16)</sup> 문법어들을 명명어들로 보기는 곤란하다. 이는 명명에나 해당되는 기호삼각형을 언어 기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임을 뜻하는 것이다.<sup>17)</sup> 뒤크로 Ducrot와 앙스콤브르 Anscombre의 언어의 논증 이론의 측면에서도 <도식-3>은 성립되기 어렵다.<sup>18)</sup>

앵글러는 대상과의 관계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로 이루어진 기호의 묶이라고 명시적으로 지적한다.

14) Chevalier(1996: 85)가 말하는 “être(‘aun’인 것, ‘aun’이 의미하는 것)”와 “servir à(‘aun’이 쓰이는바, 그것이 나타내는 것)”의 대립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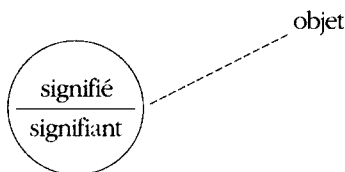
15) Engler(1973), p. 45.

16) Kleiber(1984), p. 82; Kleiber(1997), p. 18 참조.

17) Kleiber(1984)는 명명과 지칭 désignation을 구분하며, 기호↔사물의 관계에 대해 명명이라는 말을 할 수 있으면 개별 지시 관계가 대상 x와 기호 X 사이에 사전에 설정되어 있어야만 하나, 지칭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x와 X 사이에 그러한 개별 지시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지칭을 하기 위해 지칭 관계를 배우는 것이 필수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18) Anscombre(1989), p. 39.

〈도식-5〉



그는 또한 소쉬르의 강의의 한 대목을 환언하여 “기호의 법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호들에 제시된 질료에서 가리킬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호는 “분할의 원리”고, 가능한 분할은 분할에 쓰이는 기호들과 함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기호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 획정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sup>19)</sup> 메이어 Meyer 같은 학자는 ‘지시 référence’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이를 지시성 référentialité와 구분한다. 언어에 핵심적인 것은 지시성 개념이지 — 러셀 Russell 이래 흔히 그랬던 것처럼 — 현실이 어떤 것인지 존재론적으로 알고 언어 이론을 일종의 존재론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지시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다.<sup>20)</sup> 그런데, 많은 언어학자들이 ‘지시’를 —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 메이어가 말하는 지시성으로부터는 논리학자나 철학자들이 말하는 의미에서의 존재론적인 지시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프조 등의 주장은 개념상의 차이에 유의하지 않고 단순히 소쉬르의 기호 모델을 오그던/리처즈의 기본 삼각형과 결합시킨 데에서 연유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sup>21)</sup> 기움언어학을 “구조주의적으로 독해하는”<sup>22)</sup> 신(新)기움학자들의 생각은 분명하다. 슈발리에(1988: 167)는 문장 내에

19) Engler(1973), pp. 39~46.

20) Meyer(1992), pp. 45~46.

21) Heger(1969), pp. 52~53.

22) Molho, Launay, Chevalier(1988), p. 46.

서건 문장 외에서건 낱말은 지시물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단언한다. 지시물은 낱말들의 조합과 그 조합이 작용하는 환경하고만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 3.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그러면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관계는, 클레베르(1997: 20)도 인정하듯이, 기호삼각형에서 진정으로 언어적인 관계다. 소쉬르(1972: 100)는 이들의 관계를 자의적인 것으로 보았는데,<sup>23)</sup> 부케(1997)에 의하면 이 자의성은 시니피앙들 사이의 관계와 시니피에들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이 자의성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나, 아마케르 Amacker(1975)가 지적했듯이, 기호의 범시태적 panchronique인 원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마케르는 문법이라는 것 자체가 자의성에 대한 제한, 즉 유연화 motivation이라고 지적한다.

신기유문학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형성 paronymie이 기호구성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bonheur/honneur, collusion/collision, traduttore/traditore, Qui se ressemble, s'assemble 등은 물론, chanter/je chantais, je chanterai/je mangerai, le/me/se, le/lui 등도 유형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즉 비유연적인 관계뿐 아니라 유연적 관계도 역시 유형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니피앙의 유사성과 상이성은 시니피에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어, 불어에서 encore, même, bien que라는 서로 다른 세 시니피앙으로 나타나는 시간성(Travaja aun = “Il travaille encore”), 포함(Saludó a todos y aun al perro = “Il salua tout le monde,

23) Launay(1986b)는 이 자의성이 항상 시니피앙/지시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même le chien”), que와 함께 나타내는 양보(Aunque llueve, salgo = “Bien qu’il pleuve, je sors”)의 의미를 스페인어에서는 ‘aun’이라는 하나의 낱말이 나타내는 것은 ‘aun’이 통합을 뜻하는 ‘un’과 유형 관계에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aun’이라는 시니피앙은 ‘a-un’이라는 단위 지향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문법에서 열쇠를 쥔 것은 시니피앙이라고 말하는 것이다.<sup>24)</sup> 역사적으로도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사이에는 상호적 조절 작용이 있어왔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sup>25)</sup>

신기유학자들은 심층 구조를 중시하는 랑가쥬 지향적인 생성 문법과는 반대로, 언어에서 표층보다 심층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공리로 한다.<sup>26)</sup> 로네(1986b: 16)는 바로 표층을 언어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지금까지 소홀히 해온 시니피앙이 이들의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몰로/로네/슈발리에(1984: 40)는 언어에서 체계나 체계성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유연적인 기호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며, 시니피에는 시니피앙에 의해서만 존재한다고 말한다. 시니피앙의 “언어 행태의 설명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시니피에는 시니피앙 자체가 드러내는 것에 대한 독해라는 것이다.<sup>27)</sup> ‘aun’의 경우, 시니피에는 ‘a + un’으로 분해할 수 있는 시니피앙 ‘AUN’의 직설적 독해와 별로 다르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관점을 취함으로써 “랑가쥬와 언어들을 존재의 객관적 여건 속에서 관찰할 수 있게 되며, 유일한 실제적 언어학적 문제인 시니피앙스의 문제를 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28)</sup> 물론 역사적 측면의

24) Molho, Launay, Chevalier(1984), p. 36.

25) Launay(1986a) 참조.

26) Molho, Launay, Chevalier(1986: 96): “il n’y a rien de plus profond dans un langage que sa surface: pour qui sait la regarder, elle est la traduction même de ce qu’il est en profondeur.”

27) Molho, Launay, Chevalier(1988), p. 50.

28) Molho, Launay, Chevalier(1984), pp. 39~40 참조.

어원적 연구는 결코 드물지 않으며, 이 역시 '시니피앙의 이유'와 무관하지 않으나, "왜 주어진 어떤 한 언어의 어떤 시니피앙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매우 실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공시언어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연구가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나, 기욤의 정신기호학 psychosémiologie은 예외로 인정한다. 그런데 기욤이 시니피앙은 '일관성'에 의해 지배되나 시니피앙은 '표현의 충족성'에 의해 지배된다고 하며 시니피앙에 대한 우선성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신기욤학자들은 시니피앙과 시니피앙의 적합성 convenance의 '상호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기욤언어학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통해 기욤언어학의 일관성이 제고되었을 뿐 아니라, 그 결과—그것이 본래 의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소쉬르 기호학의 해석과 전망을 새롭게 하게 된 것이다.<sup>29)</sup>

#### 4. 시니피앙과 지시물

이제 시니피앙과 지시물의 관계를 살펴보자. 이 관계는 위의 〈도식-3〉에서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실선으로 표시된 경우와는 달리 직접

29) 이렇게 되면 의미론 차원에 파급 효과가 없을 수 없다. 사실 Molho/Launay/Chevalier (1988)에게는, 적어도 엄밀한 의미의 랑그 차원에서는 동형어도 없고, 동의어도 없다. 이들은 동형어와 동의어 모두 랑그의 시니피앙에 의해 한정된 장과 개념화된 경험과의 조우에서 비롯되는, 하나의 원인에 대한 두 결과로 본다. 이들은 동형성/동의성이 중의성 ambigüité/환언성 paraphrase과 유추 관계에 있다고 말하며, 동형성의 동의성에 대한 관계는 중의성의 환언성에 대한 관계와 같다고 지적한다. 동의성과 환언성의 공통점은 양자에서 두 언어 구조의 하나의 지시 관계와의 동시 양립성이 문제된다는 것이고, 동형성과 중의성의 공통점은 두 지시 관계의 하나의 동일한 언어 구조와의 동시 양립성이 문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언어학자들의 일반적인 입장과는 반대로, 전자들이 후자들보다 일반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 전자들에서는 언어 구조가 기초적이고 일차적이지만(랑그의 단위가 문제가 된다), 후자들에서는 언어 구조가 문장 차원의 이차적인 것으로, 이들의 차이는 기본적 메커니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는 랑그 차원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담화 차원의 것이라는 '논증'의 차이라는 것이다. 이는 뒤에 언급될 '개념적 지시물'을 랑그 차원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데, 대부분의 언어학자와 기호학자들의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라스티에 Rastier(1990: 65)는 기호와 언어 외적 현실과의 관계가 늘 '문제 제기적'이며 '간접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지시는 시니피앙이 아니라 시니피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sup>30)</sup>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로 이루어진 기호 전체가 대상과 잠재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본 앵글러 같은 경우에서도 시니피앙의 구체적인 역할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시니피앙의 언어학'을 주장하는 신기움학자들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이들은 우선 '시니피앙'이라는 용어 자체에 주목한다. 'signifier'의 현재분사형이 명사화한 'signifiant,' 즉 '시니피앙'은 말 그대로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현재의 언어기호학에서는 말하자면 거의 '무의미한 insignifiant'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시니피앙의 고유 속성은, 통시적으로든 공시적으로든, 미리 주어져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선존재로서 시니피에의 속성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한다는 것이다.<sup>31)</sup> 마치 Macchi(1986: 77)에 의하면, 시니피앙은 "전언의 정확한 전달의 가능 조건"이다. 슈발리에/로네/몰로(1984)는 "시니피앙의 지시 능력"에 대해 말한다. 즉, 시니피에는 "시니피앙에 표지된 속성"이며, 그 "시니피앙의 문법의 무의식적 원인"인 시니피에는 그 "시니피앙의 지시 능력"과 "통사적 제한"의 결정적 요소라는 것이다. 이들은 시니피앙을 지시 능력 실현의 일종의 보루로 본다. 로네(1986b)는 시니피앙이 시니피앙의 결합물 — 이 역시 시니피앙이다 — 인 문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시에 '기여'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신기움학자들의 입장에서 시니피앙과 지시물 사이의 관계는 위에서 본 앵글러의 도식과 유사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그들의 입장에서 기호삼각형은 기호에 대한 적절한 도식이 되지 못

30) 그는 이에 대한 주에서 "지시물을 표현과 연관짓는 '직접 지시' 이론은 거부한다"고 밝히고 있다.

31) Chevalier/Launay/Molho(1984), p. 38.

하는 것이다.<sup>32)</sup>

## 5. 시니피에와 지시물

이제 시니피에와 지시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클레베르(1997: 9)는 언어 표현을 그것이 표현하는 그 무엇과 연결하는 관계가 지시 관계고, 그 무엇은 지시물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이때의 '언어 표현'이, 많은 경우, 위의 <도식-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니피에만을 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니피에/지시물 관계는 자질이나 필요충분 조건에 의한 지시의 경우에는 비교적 잘 적용되나, 원형의미론이 더 적합한 색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지시물 개념이 다소 모호해짐에 따라 그 적용이 힘들어지며, 따라서 기호삼각형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말하기도 어려워진다.<sup>33)</sup>

소쉬르(1972: 199)에 의하면 랑그에는 차이밖에 없다고 한다. 시니피앙이나 시니피에나, 언어 체계에 앞서는 소리나 개념은 없으며, 단지 이 체계에서 비롯되는 개념적 차이와 음성적 차이만 있다는 것이다. 기호의 양면은 이렇게 순전히 차별적이며 부정적이나, 그 조합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소쉬르의 주장인데,<sup>34)</sup> 이러한 주장은, 탕바메츠 Tamba-Mecz(1979)에 의하면, 의미 signification가 시니피에가 되어버리든가, 아니

---

32) 신기움학자들이 말하는 시니피앙의 역할은 두 언어가 상호 작용을 하는 번역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물론 언어1로 된 텍스트1을 언어2로 번역할 때, 그 텍스트1의 시니피앙 자체를 번역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텍스트의 시니피앙이 어떠한 개별 시니피앙들로 구성·결합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그 텍스트가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잣대가 구체적인 하나의 지시 의미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나, 그 텍스트의 시니피앙이 허용하는 의미와 허용하지 않는 의미를 염두에 두는 것은 충실한 번역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33) Kleiber(1997), p. 33.

34) Saussure(1972), pp. 166~67.

면 의미가 가치 valeur와 혼동이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sup>35)</sup>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딜레마 혹은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택한 방법은 언어 의미와 개념의 구분이다. 예를 들어 의소 분석의 결과 얻어진 의소 sème를 언어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 의소가 —여러 이유 중에서도— 차별적인 환입 commutation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라스티에(1988: 682)는 언어 내용 contenu linguistique과 개념 concept을 구분하지 않을 때 가능한 유일한 의미론은 개념의 '통사론'이라는 의미의 논리학이라고 말하며, 소쉬르의 기호 모델 또한 시니피에를 개념으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미구분과 고리를 끊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라스티에는 이렇게 언어 내용과 개념을 구분하지 않기는 스콜라 학파의 vox/conceptus/res의 삼분법이나 퍼스의 기호/해석항/대상의 삼분법, 그리고 오그던과 리처즈의 Symbol/Thought/Referent의 삼분법, 이를 다소 바꾼 라이언스 Lyons의 Form/Meaning(Concept)/Referent이라는 삼분법 모두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이러한 언어 내용과 개념의 구분은 올만으로부터 포티에 Pottier를 거쳐 명시적으로 개념과 시니피에를 구분한 헤거 K. Heger에 이르러 명료하게 되었다는 것이 라스티에의 생각이다.

그러나 언어 의미와 개념을 구분한다고 해서 탕바메츠가 지적한 딜레마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해서 부정적인 가치들의 조합이 긍정적인 의미를 발생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sup>36)</sup> 벤베니스트 Benveniste(1974)가 '기호적 방식 mode sémiotique'과 '의미적 방식 mode sémantique'을 구분한 것도 의미와 가치의 혼동이 되는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sup>37)</sup> 전자는 "언어 기호의 잠재태의 존재 방식으로서 실제 담화 상황을 상정하지 않은 언어 형식"이고, 후자는 "의사 소

35) Tamba-Mecz(1979), p. 329.

36) Kleiber(1997: 26)도 단지 차별적이기만 한 모든 의미 이론은 한 단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37) de Vogüé(1997) 참조.

통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담화의 현실태"다.<sup>38)</sup> 기호를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이중적 존재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지시물을 포함한 삼중적 존재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이 오래된 문제에 대해 서정철(1996: 229)은 벤베니스트가 의미의 두 양식의 구분을 통하여 "가장 좋은 대답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

로네(1986b)는 이 두 양식 대신에 '시니피앙스 signifiante'와 '지시 référ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호가 랑그를 담화의 가능 조건으로 보았듯이, 시니피앙스를 지시의 가능 조건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는 시니피앙스가 지시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직접적 '산출'이 아니라 '비금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L'homme n'est qu'un roseau pensant"과 "L'homme arriva exténué"에서 시니피앙 /L'homme/는 어떤 지시 의미와는 양립하지만 어떤 지시 의미와는 양립하지 않는다. 로네는 이러한 양립성/비양립성을 시니피앙스의 제한의 결과로 본다. 그는 관사 le에 대해 총칭이다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맥락 때문이고, 관사 le가 의미하는 것이 랑그가 아니라 담화라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sup>39)</sup> 그는 또한 지시 의미의 산출은 '맥락'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지시는 시니피앙들의 '조합'의 독점적 산물이라고 말한다. 'L'homme' 그 자체는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으며, 관사 le 역시 문장의 다른 요소들과 더불어 지시에 '협력'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문장의 어느 요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는 또한 시니피앙스가 가능한 지시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는 '공존'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관계를 시니피에와 지시물이나 기호와 지시물의 관계와 동일 위상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38) 서정철(1998), p. 197.

39) Launay(1986: 22): "L'article L(E) ne signifie en discours 'rien de plus ni de moins' que ce qu'il signifie en langue, à savoir toujours la même chose, qu'on représentera ici par /l(e)/."

수 있을 것이다.

벤베니스트는 의미의 두 양식 사이에 어떠한 전이 transition도 없다고 단언하였지만, 신기움학자들은 기호적 방식이 주체의 의미적 방식의 조작을 조건짓는 주요 부분이기 때문에 전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조건화는 '제한'과 '차별'이라는 시니피앙의 이중 기능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기호적 방식은 그 제한 기능에 의해 시니피앙의 지시 영역을 확보하고, 그 차별 기능에 의해 구체성을 확보한다고 한다.<sup>40)</sup> 슈발리에(1996)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가 지시물을 '허용'하는 것이고, '인가'하는 것이며, '양립할 수 있는' 것이지 잠재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로네(1986: 25)는, 더 구체적으로, 기호적 양식의 의미적 양식으로의 전이가 통사적 양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sup>41)</sup> 문장 내에서 형태소들의 배열에 관여하는 규칙들은 바로 기호적 양식의 도움으로 의미적 양식을 산출하는 법칙들이라는 것이다.

신기움학자들은 지시(관계)에서 개념적 지시물과 경험적 지시물을 구분하는데, 이는 J.-C. 밀네르 등의 '잠재적 지시'와 '실제적 지시'의 구분에 해당한다. 개념적 지시물은 "경험들의 확인과 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중계 구조"<sup>42)</sup>로, 대부분의 구조주의 의미론 학자들이 혹은 '시니피에'로 혹은 '지시 의미' 등으로 간주했던 것인데, 로네(1986b: 18)는 이를 "사물 범주의 내포적 정의, 대략적으로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마치(1986)는 화자가 낱말의 개념적 지시물을 정의할 수는 있어도 그 시니피에, 말하자면 시니피앙과 개념적 지시물의 연합 관계를 조건짓는 그것은 결코 알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의미적 방식은 의식할 수 있지만, 기호적 방식은 무의식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어 사용자의 관점에서 시니피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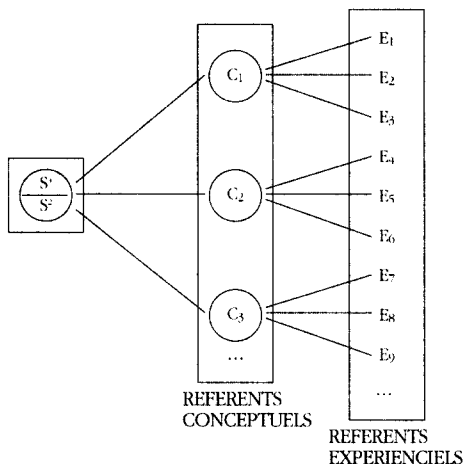
40) Chevalier(1996), p. 87.

41) Launay(1986: 25): "Ma thèse, comme on l'aura sans doute compris, est que la transition du 'sémiotique'(la signification) au 'sémantique'(la référence) s'opère par le biais du syntaxique."

42) Chevalier/Launay/Molho(1984), p. 38.

의 상대물은 개념적 지시물인 것이고, 신기유학자들의 관점에서의 언어는 “이중적 지시 장치”인 셈이다.<sup>43)</sup> 몰로/로네/슈발리에(1984: 37)는 기호와 개념적 지시물, 그리고 경험적 지시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도식-6〉



신기유학자들은 언어를 배우는 것을 시니피앙과 개념적 지시물의 연합 관계를 익히는 것으로 본다. 시니피에는 언어 사용자가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슈발리에(1985: 360)는 이를 물의 단순 사용자와 화학자와 물리학자의 경우에 비유하고 있다. 물이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물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날 말을 왜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지는 몰라도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신기유학자들의 입장은 기호만이 랑그에 속하는가, 아니면 개념적 지시물도 랑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때로 개

43) Chevalier/Launay/Molho(1984), pp. 37~38.



념적 지시물의 속성의 하나나 그 일부가 시니피에를 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그 입장에 다소 모호한 점이 없지 않으나, 적어도 언어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개념적 지시물을 랑그에 포함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로 이루어진 기호를 “이중적 지시 장치”와 구분하는 것은 범시태적 원리로서의 자의성을 연상시킨다. 그러니까 시니피앙과 개념적 지시물이 포함되지 않은 시니피에의 관계는 범시태적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의미론들이 기호의 대상들을 기술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앵글러(1973: 49~50)도 소쉬르의 관점에서 시니피에는 그 자체로는 배분이고 차별적이고 부정적이지만, 주어진 공시태에서는 긍정적이 되고, 그래서 대상의 성질들의 일반화에 입각한 내포적 정의도 가능해진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뷔르제 Burger(1969: 242)가 붙여 반과거의 가치를 ‘inactuel’로 규정한 것도 이러한 내포적 정의의 입장이었다.

## 6. 의소 분석과 nous의 분석

이제 의소 분석과 nous의 분석을 통하여 시니피에와 지시물의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의미의 구조주의적 분석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 활용되어온 의소 분석은 시니피에를 의미소들의 합으로, 의미소는 의소들의 합으로 기술한다. 이러한 기술이 부분적으로 형식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순수한 차별적·부정적 기술로 보기는 어렵다. 마치(1991: 109)는 의소의미론이 시니피에가 아니라 수신자의 개념 작용을 기술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의소 분석이 ‘의미’가 아니라 ‘개념화된 사물들’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본다. 의소 개념은 주어진 언어, 특히 의사 소통의 구체적 상황과 관련된 경험적 지식

의 산물로, 보편적도 아니고 궁극적도 아니며, 원초적도 아니라는 것이다.

로네(1986b: 18~19)도 의미소는 개념적 지시물 혹은 잠재적 지시물이라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시니피에를 의미소들의 집합으로 간주하는 것은 시니피앙스와 지시, 기호적 방식과 의미적 방식을 중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개념적 지시물이 시니피에와는 층위가 다른 개념인 것처럼, 의미소도 시니피에와는 층위가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1991)가 제시하는 문제 해결의 방향은 기호적 방식과 의미적 방식을 구분을 받아들이는 다음, 우선 기호 양식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는 의미 전체를 다루려 하기보다는 지시물을 제외한 나머지로써의 의미를 다루거나, 혹은 지시물과 시니피앙과의 환입 관계를 따져보아 시니피앙의 실질적 속성들을 살피는 것이다. 로네(1986b)도 의미 효과나 가능한 지시 의미들의 제한, 비양립성들의 성격을 징후나 지표들로 삼아 시니피앙스를 이끌어낼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시니피에와 개념적 지시물의 구별이 핵심인데, 이에 대해서는 슈발리에/로네/몰로(1984: 36)가 시니피에를 “다양한 개념적 지시물들에 공통적인 일련의 속성들”이 아니라<sup>44)</sup> 그 “속성들 중의 하나나 일부”라고 말한 대목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슈발리에(1988)는 강세형 대명사 nous의 시니피에는 흔히 /moi + (toi n fois) + (lui ou elle n fois)/나 이와 비슷한 형태로 기술되는데, 이는 nous가 속한 문장의 지시물에 속하는 것을 nous에 속하는 것으로 잘못 간주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nous의 시니피에를 묻는 것은 nous 문장들이 지시하는 인칭들의 조합이 어떠한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nous 문장들에서 nous가 담당하는 몫이 어떤 것인지를 묻는 것이라고 한다. nous는 언제 어디에 나타나든지 자신의 몫만 줄 수 있고, 그 몫은 항상 전체적으로 주는데, 그 nous의 몫이 바로 ‘moi와 non-moi의 결합체’이고, 이것이 nous의 시니피

---

44) 이는 시니피에를 원의미소archiséme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받아들이 수 있다.

에라는 것이다.<sup>45)</sup> 그렇다면 /moi + (toi n fois) + (lui ou elle n fois)/는 개념적 지시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위에서 예로 든 스페인어 'aun'의 경우에서도 시간성, 포함, 양보는 개념적 지시물에 해당하고, 그 시니피에는 "비양립적으로 나타난 두 표현의 결합과 통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46)</sup>

시니피에의 분석이 모호하게 혹은 모순되게 나타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슈발리에(1985)는 한 곳에서는 삼중 지시가 사중 지시로 바뀌어도 시니피에가 바뀌지 않는다고 했으나(p. 349), 그 몇 페이지 뒤에서는 시니피에가 바뀌었다고 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를 보더라도 시니피에와 개념적 지시물의 구별은 용이한 것이 아니다. 여하튼, 신기율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의 구별, 그리고 언어적인 것에서도 우선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의 구별이다. 언어적인 것은 시니피앙과 시니피에고 그들의 관계며, 의미의 관점에서도, 개념적 지시물은 시니피에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것이다. 경험적 지시물은 구체적 의사 소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겠으나, 신기율학자들의 관점에서는 이차적인 것이다.

## 7. 맺는 말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기호삼각형이 소쉬르나 신기율학자들의 언어 기호 개념을 표상하기에는 적합치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것이다. 사실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를 아우르는 언어기호학은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

45) 문장이 쓰인 상황에는 /moi + autres/라는 nous의 내용과 양립해야 compatible 한다는 것만이 요구되는 것이고, nous 문장들이 쓰인 상황에서 nous는 nous문장과 그것이 쓰인 상황의 양립성을 나타내는 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립성'과 '충분성'을 인정하고 적용하게 되면 언어 연구가 크게 진전하리라는 것이 Chevalier(1988: 169)의 생각이다.

46) Chevalier/Launay/Molho(1984), p. 35 참조.

했다. 이런 상태에서 소쉬르 기호학을 ‘철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기욤 자신을 비롯해 많은 기욤학자들이 소쉬르 언어학을 넘어선 언어학이라고 믿었던 기욤의 언어학의 인식론적 분석, ‘구조주의적 독해’를 통해 ‘시니피앙의 언어학’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연 몰로, 로네, 슈발리에 등의 신기욤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시니피앙의 언어학’은 온전한 의미의 언어기호학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시니피앙의 언어학은 다른 언어기호학적 연구<sup>47)</sup>에 선행하는 혹은 병존하는 것일 뿐, 배타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언어에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다시 말해 무엇이 연구자의 문제인가에 따라 그 답과 답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퍼스의 무한정 삼각형의 기호/대상이 소쉬르의 시니피앙/대상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 사실, 퍼스 기호학에서는 모든 대상이 기호가 되고 세상도 언어가 되나, 소쉬르 기호학이나 시니피앙의 언어학에서는 그렇지 않다. 특히 해석학 개념은, 현대 의미론에 대한 기여가 어떠하든,<sup>48)</sup> 시니피앙에와는 매우 다른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프랑스에 퍼스를 알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들달 Deledalle(1979: 39)은 “퍼스와 소쉬르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하나의 모델이 독자적이며 외부로부터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 퍼스의 기호학을 소쉬르의 관점에서 말하거나 판단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소쉬르 기호학을 퍼스의 관점에서 말하거나 판단하려는 것은 공연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각 모델의 유효성은 궁극적으로 그 모델의 일관성과 그 모델이 가능하게 하는 분석들의 풍요성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소쉬르 기호학 연구가 부진하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언어학자들의 연구 관심이 랑그 langue로서의 언어에서 랑가주 langage로서의 언어로 옮겨갔다는 것이 큰 이유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47) Charaudeau(1983)는 그러한 연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8) Eco(1980) 참고.

언어의 랑그적인 측면에, 언어의 개별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졌거나 가진 사람들은 언어학이 가장 언어적인 것보다는 보다 덜 언어적인 것의 연구에 힘을 쏟아왔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이는 문제 혹은 문제 제기의 차이일 뿐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 소홀히 해온 부분에 대한 연구가 부진했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쉬르가 기획했고, 신기름언어 학자들이 그 구체적 가능성을 열어 보인 진정한 의미의 기호언어학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이제는 해야 할 때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호삼각형을 매개로 하여 그 일단을 살펴본 언어 기호의 개념은 여전히 중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Anscombre, J.-C.(1989), "Théorie de l'argumentation, topoï et structuration discursive," *Revue québécoise de linguistique*, v. 18, n° 1, pp. 13~56.
- Baylon, C. et Mignot, X.(1995), *Sémantique du langage: Initiation*, Nathan Université.
- Benveniste, E.(1974), *Problèmes de la linguistique générale*, t. 2, Gallimard.
- Bouchard, G.(1980), "L'A, B, C de la sémiologie. A propos de *Silence, on parle: introduction à la sémiotique*," *Philosophique*, v. VII, n° 2, pp. 321~75.
- Bouquet, S.(1997), "Benveniste et la représentation du sens: de l'arbitraire du signe à l'objet extra-linguistique," *Emile Benveniste, vingt ans après*, sous la direction de M. Arrivé et C. Normand, CRL-Université Paris X, pp. 107~22.
- Burger, A.(1969), "Significations et valeur du suffixe verbal français -e-," *A Geneva School Reader in Linguistics*, (ed.) by R. Godel, Bloomington

- & London: Indiana University Press, pp. 232~43.
- Charaudeau, P.(1983), *Langage et discours: Eléments de sémiolinguistique (Théorie et pratique)*, Hachette Université.
- Chevalier, J.-C.(1985), "Un nouveau passage du nord-ouest(De la *Langue au Discours du Sémiotique au Sémantique*), *Bulletin hispanique*, t. LXXXVII, n° 3~4, pp. 337~61.
- Chevalier, J.-C.(1988), "Le bien des mots," *Mélanges offerts à Bernard Pottier*, vol. I, Klincksieck, pp. 165~71.
- Chevalier(1996), "De Guillaume à une linguistique du signifiant," *Modèles linguistiques*, t. XVI, fasc. 1, pp. 77~92.
- Chevalier, J.-C., Delport, M.-F.(1995), "Temps des choses, temps de l'outil," *Modèles linguistiques*, t. XVI, fasc. 1, pp. 149~64.
- Chevalier, J.-C., Launay, M. et Molho, M.(1982), "De l'hypothèse en espagnol," *L'information grammaticale*, n° 13, pp. 12~16.
- Chevalier, J.-C., Launay, M. et Molho, M.(1983), "De la concession en espagnol(Le signifiant AUN/AUNQUE)," *L'information grammaticale*, n° 18, pp. 3~8.
- Chevalier, J.-C., Launay, M. et Molho, M.(1984), "La raison du signifiant," *Modèles linguistiques*, t. VI, fasc. 2, pp. 27~41.
- Chevalier, J.-C. et Molho, M.(1986), "De l'implication: esp. pues fr. puis," *Travaux de linguistique et de littérature*, XXIV, 1, pp. 23~34.
- Chevalier, J.-C., Launay, M. et Molho, M.(1988), "Sur la nature et la fonction de l'homonymie, de la synonymie et de la paronymie," *L'ambiguïté et la paraphrase*, édité par C. Fuchs, Centre de Publications de l'Université de Caen, pp 45~52.
- Deledalle, G.(1979), *Théorie et pratique du signe: Introduction à la sémiotique de Charles S. Peirce*, Payot.

- de Vogüé, S.(1997), "La croisée des chemins: remarques sur la topologie des relations langue/ discours chez Benveniste," *Emile Benveniste, vingt ans après*, sous la direction de M. Arrivé et C. Normand, CRL Université Paris X, pp. 145~58.
- Eco, U.(1980), "Peirce et la sémantique contemporaine," *Langages*, n° 58, pp. 75~91.
- Engler, R.(1973), "Rôle et place d'une sémantique dans une linguistique saussurienne," *Cahiers de Ferdinand de Saussure*, 28, pp. 35~52.
- Heger, K.(1969), "L'analyse sémantique du signe linguistique," *Langue française*, n° 4, pp. 44~66.
- Kleiber, G.(1981), *Problèmes de référence descriptions définies et noms propres*, Klincksieck.
- Kleiber, G.(1984), "Dénomination et relations dénominatives," *Langages*, n° 76, pp. 77~94.
- Kleiber, G.(1997), "Sens, référence et existence: que faire de l'extra-linguistique?," *Langages*, n° 127, pp. 9~37.
- Launay, M.(1986a), "Gustave Guillaume: la loi et le symptôme," *Linguistique fantastique*, éd. par S. Auroux t al., Denoël-Clims, pp. 324~38.
- Launay, M.(1986b), "Effet de sens: produit de quoi?," *Langages*, n° 82, pp. 13~39.
- Macchi, Y.(1986), "Du rôle du signifiant dans la genèse du sens énonciatif," *Langages*, n° 82, pp. 67~82.
- Macchi, Y.(1991), "Halte aux manipulations sémiques! De la métaphore chimique en sémantique," *Modèles linguistiques*, vol. 25, XIII, 1, pp. 101~16.
- Meschonnic, H.(1997), "Benveniste: sémantique sans sémiotique," *Emile*

- Benveniste, vingt ans après*, sous la direction de M. Arrivé et C. Normand, CRL Université Paris X, pp. 307~25.
- Meyer, M.(1992), *Langage et littérature*, PUF.
- Nattiez, J.-J.(1975), "Le point de vue sémiologique," *Cahier de linguistique*, n° 5, pp. 49~76.
- Nattiez, J.-J.(1976), "Quelques problèmes de la sémiologie fonctionnelle," *Semiotica*, IX(2), pp. 157~90.
- Pesot, J.(1979), *Silence, on parle: Introduction à la sémiotique*, Guérin.
- Rastier, F.(1988), "Problématiques sémantiques," *Hommage à Bernard Pottier*, v. 2, Klincksieck, pp. 671~86.
- Saussure, F. de(1972),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édition critique préparée par Tullio de Mauro, Payot.
- Tamba, I.(1988), "Et si l'on retournait le 'triangle sémiotique?', " *Hommage à la mémoire de Jean Stefanini*, Recueil d'études rassemblées par C. Blanche-Benveniste, A. Chervel et M. Gross, Publication de l'Université de Provence, pp. 413~22.
- Ullmann, S.(1952), *Précis de la sémantique française*, A. Francke.
- Voigt, V.(1991), "Une différence méthodologique: La sémiotique est la 'théorie générale des systèmes de signification' et non pas la théorie des signes," *Semiotica*, v. 83-1/2, pp. 69~79.